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광장

www.council.jeju.kr

2024 제106호 02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전화 064-741-2285 ISSN 2671-9754

언제나 반가운 봄 우리나라 최남단 제주에 봄이 앉았다.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예년보다 따숩고 비 많은 시절이라 반갑게 맞기 어렵다. 그래도 이제 봄이라고 제주 섬 뜰 한라산 자락 타고 노랗고 화사한 기운이 한가득이다. 겨울 끝 아직 싸늘한 시기에 입김 대신 꽃바람이 인다. 어떻게 얼었던 흙에다가 온기를 넣었을까. 이른 것들에서 이렇게 배운다. / 김명선 주무관

올해 127일 의정활동 시작…"모두가 최선 다하겠다"

제424회 임시회 11일간 열려
교섭단체 대표연설 진행
도정 주요업무 보고받아

"도정·교육행정 견제·감시로
바람직한 방향 제시할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9일 제42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127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올해 회기 일수는 총 11회·127일로, 정례회 2회·39일과 임시회 9회·88일을 운영하게 된다.

올해 첫 회기인 제424회 임시회는 29일까지 11일간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뤄졌으며,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또한 202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원내대표(조천읍), 국민의힘 현기종 원내대표(성산읍), 미래제주 정이운 원내대표(서귀포시 서부)가 나서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다.

2024년 도정 주요 업무보고는 1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지사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사일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의원발의 조례안 16건과 도지사 제출 의안 7건을 포함한 총 23건에 대해 심사가 이뤄졌다. 또한 각 상임위원별로 현장방문이 이뤄지는 등 올해 첫 회기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꽉 채워졌다.

회기중 제주도의회에 상복이 터지기도 했다. 지난 23일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의 '제20회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과 개인부문에서 제주도의회가 수상을 휩쓰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 성과에 전국의 이목이 집중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보고는 다음달 개회되는 제425회 임시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김경학 의장은 "올해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 민생경제 회복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4년에는 민생 경제의 회복을 위해 당면 현안별로 탄력적인 회기 운영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의회 운영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의원 44명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오는 4월과 9월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은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이뤄지게 된다. 또한 오는 7월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개원에 따라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는 10월 임시회를 통해 진행되며 2025년도 예산안은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은 12월 임시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면안내

2~3 제424회 임시회
4~6 주요 이슈
9 생생 의정활동
10~11 함께합시다
12 사무처 소식

QR코드를 스캔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월간 「도민광장」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

제424회 임시회

김경학 의장, 19일 열린 올해 첫 임시회서 강조

“민생 현장에 더 다가가는 의정활동 펼치겠다”

“책임있는 견제·감시 역할, 제주공동체 조성 위해 최선”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지난 19일 열린 2024년 첫 임시회에서 지역 현안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그간 도민들의 민심을 들어보니,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가장 컸다. 경제위기로 움츠렸던 도민들의 어깨가 펴지고 행복한 변화가 이뤄지길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면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불편을 초래하거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책임있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과 함께 동행하며 더불어 행복한 제주공동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이어 “올해는 행정체제개편을 비롯해 제주 제2공항 사업,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부동산 가격 문제,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복지체계 구축, 1차산업 활성화, 기후 위기 대책, 환경보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만 과제 해결에 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의 월동채소 농가가 과잉생산과 소비침체, 한파 피해까지 더해져 어려움이 커졌다. 농가가 마주한 어려움 중에서 일손부족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제주도의회는 농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감귤농가에 도입되어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대학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의 개원 소식도 전했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도 내 등록 발달장애인은 매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체계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제주도의회는 앞서 2차례에 걸친 제주대학교와의 정책간담회에서 특수교육학과 신설과 제주대학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주대학교병원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받아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하게 됐고, 3월부터 본격 진료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또한 최근 제기되는 의료대란 우려와 관련해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있다. 제주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도민들의 건강권은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 현장을 지키면서 대화로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 문제 전략적으로 대응”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9일 제4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4년은 더욱더 담대한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인구 감소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제주가 새롭게 성장하는 디딤돌로 삼겠다”면서 “인구가 지역의 핵심경쟁력이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기획하는 인구전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정책 전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도민께 돌려드리겠다. 제주만의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 도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겠다”며 “새로운 행정체제를 도민의 손으로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내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20년 단위 법정계획인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을 수립하겠다”며 환경과 사회, 경제를 아우르는 제주의 최상위 법정계획 마련을 제시했다. 이어 “도민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소통에도 충실히 임할 것”이라며 “‘15분 도시 제주’ 완성을 통해 도민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집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지사는 이 밖에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전남 녹동항 내 제주물류센터 신설 △(가칭)역사정립위원회와 제주역사관 건립 △민간우주산업과 도심항공교통, 그린수소와 바이오산업과 같은 기술집약형 첨단 산업 육성 등의 계획을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도민 여러분의 성원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면서 “제주도민의 삶에 미칠 실익도 상당하다. 제주연구원은 제주의 생산 유발 효과를 7,256억원으로 분석했고, 국내 취업 유발효과도 7,244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범 도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민 삶 긍정적으로 변하도록 최선”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원내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원내대표(조천읍)는 지난 19일 제424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주공동체 앞에 놓인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오영훈 도정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길호 원내대표는 “제주도민의 절대적 지지 속에 민주당은 다수당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다짐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도민의 의사를 조례에, 정책에,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겠다. 의원 한 명, 한 명의 도민을 향한 수많은 노력과 고된 열정이 제주도민의 삶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열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언제까지 논쟁만 할 수는 없다. 이제는 도민의 뜻을 묻고, 도민의 진정한 의사를 확정해서 행동에 옮겨야 한다”며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이 과정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다. 조금은 불안하고, 조금은 서툴러도 담대하게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도민사회의 걱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추진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길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도민의 주인 된 권리를 찾는 일, 생활정치에 조금 더 다가가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일, 참여 민주주의 실현으로 도민의 뜻을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는 일, 주민의 복리증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초심 그대로 변함없이 도민의 삶 살피겠다”

국민의힘 현기종 원내대표

지난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현기종 원내대표(성산읍)는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국민의 힘은 초심 그대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민의 삶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현기종 원내대표는 “제주도민들은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끊임없이 도전해 국가의 공식 사과,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수형인의 직권재심을 끌어내면서 75년이 지나서야 명예회복을 이루게 됐다”면서 “4·3의 아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흘린 제주도민들의 눈물은 역사에 깊이 새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3년은 유독 지역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와 제주의 재정에도 위기감이 가중된 한 해였다”며 “정치가 서민 경제를 끌어안아야 한다. 서민의 어려움을 가슴으로 공감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기종 원내대표는 지역 현안과 관련해 “제주 제2공항 문제가 단순 지역적, 정치적, 다른 이해관계로 인한 찬성과 반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제주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갈등이 아닌 상생을, 정치적 수단이 아닌 제주의 미래와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소멸과 관련해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5년 동안 25%가 감소했다. 인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신설해 제주만의 특별하고 획기적인 인구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행정체제 개편 관련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 다시 총의를 모아가야 한다. 신뢰성 있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과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은 현장에서의 각종 혼란을 최소화하고 늘봄학교에서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 적극 협력”

미래제주 정이운 원내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미래제주 정이운 원내대표(서귀포시 서부)는 지난 19일 대표연설을 통해 “올해도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주 미래를 이끌기 위해 진취적인 도전과 용기를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이운 원내대표는 “지역의 인구 감소로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지역 소멸 위기 등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해 제주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서로 협업하며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제주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정이운 원내대표는 “먼저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제주교육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제주도교육청은 소통 창구로서 교육협력관제도를 신설해 지자체와 대학에 파견하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은 물론 파격적인 행·재정적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제주형 유보 통합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보통합의 목적·목표, 추진 방향 등에서 제주형 유보통합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제주교육 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이운 원내대표는 “도교육청은 바람직한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지역돌봄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주형 늘봄학교’ 모델 제시, 제주교육이 직면한 큰 위기인 학령인구의 감소 대책, 읍면지역 고등학교 발전 방향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이운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유일하던 교육의원 제도가 2026년 상반기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지난 20여 년 동안 교육위원회가 제주 교육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성과보고서를 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면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도 미래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정책 추진과 재정 투입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현장 소통 위해 "도민 속으로"

김경학 의장 및 의원 등
설 명절 앞두고 현장방문
생활현장 목소리 청취·격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날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사업 영농현장인 남원읍 소재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격려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와 사증·체류 관리 제도개선, 적재적소의 인력배치 방안 등 외국인계절근로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논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서귀포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제주매일올레시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이용해 직접 제수용품을 구매하며 설 명절 물가를 체감하는 한편 현장에서 도민과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격의 없는 소통을 나눴다.

이밖에 도내 군부대 및 119종합상황실과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등 생활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을 방문해,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 및 소방·경찰 공무원을 격려하고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김경학 의장은 "설 명절을 맞아 농가들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경제의 흐름과 분위기를 살피며,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통시장 현장을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 불편 초래와 경제활동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등의 애로사항을 듣게 됐다"면서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사업 확대 도입과 지역상권 강화 및 소비물가 안정 등 일상생활에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도정과 협력해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월동채소 수급안정 현장에서 활로 모색

도의회, 농협·농가 방문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
월동채소 소비 운동도 참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월26일 소비침체 및 과잉생산 등으로 수급조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동채소 유통현장 및 농가를 방문했다.

제주산 월동채소가 본격 출하됐지만 과잉생산과 소비침체 등으로 수급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동채소 유통 현장인 구좌농협유통센터를 방문, 농협 및 생산자단체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성산읍 시흥리 월동무 재배농가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김경학 의장은 "매년 월동채소의 수급조절 실패로 재배농가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월동채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은 월동채소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월동채소 착한 소비촉진 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고향 향한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

제주도의회 방문단, 지난달
재일본도민협회 신년회 참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단이 2024년 재일본 관동·관서 제주도민협회 신년인사회 참석 등을 위해 1월26일부터 30일까지 일본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단에는 김경학 의장을 비롯한 이정엽(국민의힘, 대륜동)·이상봉(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현길호(더불어민주당, 조천읍)·정민구(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양홍식(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고의숙(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의원이 함께했다.

제주도의회 방문단은 27일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회장 양일훈)의 신년인사회 및 성인식에 참석했고, 28일에는 관서제주특별자치도민회(회장 고동림)의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재일본 제주도민들의 화합과 고향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에 고마움을 전했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는 재일제주인 1세대 여러분의 도움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다"면서 "재일제주인의 공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은 사업을 활성화하고 후손들이 제주인의 자손이라는 자긍심과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29일에는 오사카 소재 발달 장애인 복지시설인 '오사카 정신의료센터 담포포'를 방문해 오사카부의 발달장애인 복지정책 사업의 추진 현황을 청취했다.

“제주도의원 일 잘했다” 우수조례 수상 휩쓸어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20회 우수조례 시상식서
단체부문 최우수상 영예
개인·공무원부문 수상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한 해 도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제주도의회는 단체부문 최우수상과 개인부문, 공무원부문에서 수상을 휩쓸었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는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 발의한 조례다. 아동에 대한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상호존중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큰 의미를 남겼다.

개인부문에는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가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별·성별·세대별 균형 잡힌 도민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소멸 대응, 성평등 실현, 세대별 형평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총 4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피해아동의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여했다.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는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등 지역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 산업 파급효과 창출 등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마을 단위 여성 리더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조성 등 마을 단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4·3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법률 대응을 위한 지원과 사전 모니터링 체계 등을 마련해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앞당기는 데 기여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마을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마을 공동돌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의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보육교직원의 인권 등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과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영유아의 복지향상 등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공무원부문에서는 우수조례 제·개정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자치위원회 최춘규 정책연구위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워크숍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현길호, 조천읍)은 지난 5일 오드리인 제주호텔에서 ‘2024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현길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임정은 수석부대표(대천·중문·예래동), 강봉직(애월읍을)·김승준(한경·추자면) 부대표, 양홍식 정책위원장(비례대표), 박두화 대변인(비례대표), 김대진 부의장(동홍동), 이승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오라동),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조화롭게 해 민생경제 활성화 등 제주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고, 제22대 총선에 대비해 원내대표단 내에 총선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현길호 원내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도민과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데 밀알이 되는 것임을 확인했다”면서 “오늘 논의된 사항들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과 공유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아 의원,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이 지난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는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을 마련한 주역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승아 의원은 “‘생활정치는 미래의 마중물’이라는 정치철학과 ‘모든 문제의 답은 도민에게 있다’라는 믿음으로 발로 뛴 의정활동의 과정을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면서도 더욱 책임감이 뒤따른다”고 밝혔다.

농수축위, 해상 어선사고 현장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 표선면)는 지난 1월29일 어선 침수·전복사고 발생으로 설치된 성산포항 현장 상황실을 찾아 어선 사고로 인한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고는 앞선 27일 밤 조업 후 회항 중이던 성산읍 선적 연안 복합 어선이 너울성 파도로 인해 기관실 침수로 침몰·전복된 것으로 추정됐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수색 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등 사고수습 전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히 현장을 방문했다.

방문 위원들은 “어선 사고 실종자들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수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선장을 비롯한 외국인 어선원 실종자 가족에 대한 상황전파 및 편의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청정환경 위해 양식시설 수질 기준 필요”

환경도시위원회 6일 토론회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위한
주제 발표·토론회 이어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는 지난 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합리적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정현 제주대학교 교수가 ‘제주연안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연안환경의 영향에 관한 최신 연구사례’ 주제 발표에 나섰고, 신수연 해양시민센터장이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연안오염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는 진희종 생태법인 연구자가 좌장을 맡고 현근탁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송창권 위원장은 “양식산업이 ‘기르는’ 어업의 대표 주자로 제주 양식장에서 생산된 광어는 국민횟감으로 사랑받아 왔다”면서 “양식산업이 보다 더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청정 해양환경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연안 청정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해 합리적 양식시설 수질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양식산업이 그 역할을 주도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테라리움 만들며 힐링해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월 공감·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평소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김경신 주임교수를 초청, 직접 테라리움을 만들어보는 원예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경학 의장은 “언제나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원 및 직원분들이 체험활동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위로와 힐링의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힐링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진 연구자들의 ‘4·3과제’ 공유

4·3특별위, 자유 연구 지원
지난달 3건 연구 결과 발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는 지난 1월2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7회 4·3정담회, 제주4·3신진학자 미래과제 연구결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4·3정담회는 4·3특별위원회가 지난해 신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4·3관련 자유주제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연구용역들의 결과물들로 채워졌다.

이 자리에서 이정원 제주한라대학교 교수의 ‘4·3교육, 단절을 넘어 융합교육으로’, 김지민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융합연구소 연구원·박사의 ‘제주4·3 영문 명칭 연구’, 채영익 미국 미들베리 칼리지 국제정치학과생의 ‘Analysing the perspective of the South Korean younger generation on the 4·3 Incident and the further historical reconciliation related to resolving past injustices’ 등 3건이 발표됐다.

한권 위원장은 “신진학자들에게 자유주제로 연구를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내용이 4·3교육과 4·3의 영문 명칭, 그리고 젊은 세대의 4·3인식 등으로 4·3특위가 미래과제로 선정한 정명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제주대학교 4·3융복합전공 개설에 의회가 많은 힘을 보탠 것과 같이 4·3의 연구 저변 확대와 미래세대 전승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서울 예결위 교류 간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 국민의힘, 한림읍)는 지난 1월3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도)와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양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 상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저출산 해결 방안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 교환 시간을 가졌다.

양용만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양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호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 대비 실질적 대책 내놔야”

행정자치위원회

도민 체감 종합계획 수립 필요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주문

제주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지난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연동을) 제424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지역 인구 감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가 더 이상 인구 위기 안심 지역이 아니다. 타 시도보다도 더 빠른 시기에 인구 소멸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주도가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정책들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용만 부위원장(국민의힘, 한림읍)은 관련 대책으로 “인구 감소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 도내 미분양 주택을 제주도가 매입해 공공임대 형태로 제공한다면 주택난 해소와 일정부분의 취득세를 세수로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주문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도 “제주도정의 인구 감소 대책 변화 의지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율을 높일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제주도가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온 특례권한과 관련해 “이양받은 권한의 약 30%를 조례조차 만들지 않는 등 활용을 못 하고 있다”면서 “산지 관리 특례, 청소년 복지 지원 특례 등 아주 좋은 권한들을 어렵게 따오고도 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민 의료 서비스 걱정 없도록 최선 다해야”

지난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한 집단 반발로 지역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사 집단행동에 의료공백 우려
장기화 대비·협조 체계 등 주문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의료진료 대책을 잘 마련해서 도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역시 “의료원, 보건소 등과 함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병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정읍)은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그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밝혔고, 김경미 위원장도 “경증환자 마저 헬기 타는 사태가 벌어져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의 지역 안전지수 평가에서 제주가 8년 연속 범죄·생활 분야 최하위를 받은 것도 도마에 올렸다.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해 이맘때쯤에도 같은 문제가 거론됐었다”라고 지적하며, “지역 안전 정책들이 CCTV에 의존돼 있는가 하면 서귀포시의 경우 파출소가 지구대로 통합되면서 시내권에 지구대가 한 곳밖에 남아있지 않는 등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도가 소방청의 119지원단 운영 취지를 과대 해석하면서, 지사의 공약인 우주 산업에 이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회기중 20일 제주의료원, 춘강장애인근로센터를 방문했다.

버스준공영제·미분양주택 대책 마련 요구

환경도시위원회

삼다수 마스터즈 개최지 두고
비난 여론…“도민 분노 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가 소관 부서로부터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가운데 제주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지난 21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6배 정도가 늘었는데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민원도 지속 늘어나고 있다. 준공영제 도입 이전으로 돌아가 도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도내 미분양 주택 문제를 제기하며 “도내 미분양 주택이 2499호다. 준공 후 미분양도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며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등 정부 건의를 통해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들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3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마스터즈 골프대회의 타 지역 개최 계획을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은 “원래 취지와 동떨어진다. 검토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도민들의 분노가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임정은 의원도 “도개발공사의 중요 수입원이 제주의 지하수”라면서 “대회가 삼다수에 대한 브랜드 홍보도 있지만, 지역 경기 활성화에 목적을 둔 것도 상당하다. 도민 삶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부가가치 관광, 내실 기해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국가 다변화·스토리 작업 필요
카지노 마케팅 변화 시도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오라동)가 제424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의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받은 가운데, 제주지역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홍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20일 제1차 회의에서 "앞으로 고부가가치 관광 시장을 만들기 위해 국가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홍동)도 "제주 관광 먹거리 증가를 위해 스토리 작업이 필요하다. 예년과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카지노 관광 산업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며 "카지노 정책이 관리 위주에 그치며 프로모션 중심의 마케팅은 없었다. 의지를 가지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아 위원장 역시 "민생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제주 관광이 고부가가치로 전환돼야 하지만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오는 4월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예정된 '이건희 컬렉션' 전시와 관련해 "전국 순회 전시 중 제주가 마지막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전시를 봤는데 '재관람객'을 잡을 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시와 관련해 연계 프로그램이 없는데 다른 지역은 지역 상권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한다"면서 "제주에서도 도내 상권,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녀수 '2천 명대'…양성 대책 필요

농수축경제위원회

신규 양성 목표 수 '25명'
도정의 의지 부족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 표선면)가 제주 해녀 수가 2천 명대로 내려가면서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1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제주도의 업무보고를 보면 신규 해녀 양성 목표가 25명에 그치고 있다"면서 "신규해녀양성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도내 한수풀해녀학교와 법환해녀학교 졸업에도 어촌계 가입은 저조하다"며 "제주해녀의 먹거리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수풀해녀학교와 법환해녀학교 신규 해녀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일원화, 체계적인 교육체계 구축 등을 주문했다.

강연호 위원장은 어촌뉴딜사업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강연호 위원장은 "어촌생활 SOC, 어촌뉴딜300 사업 등의 전체 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는다"라며 "제주시는 담당 부서가 정규 조직으로 편성됐는데 서귀포시는 여전히 TF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TF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승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만감류 출하장려금 지원이 당초 취지와 맞지 않게 이뤄지고 있어, 품종별 출하 시기 및 농가 형평성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행 앞둔 늘봄학교…준비 미흡 지적

교육위원회

교사 채용 저조한 상황에
홍보 강화·지원 요청 필요

지난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제1차 회의에서는 늘봄학교에 대한 준비 미흡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늘봄학교가 다음 달부터 도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지만, 교사 채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다.

김황국 부의장(국민의힘, 용담1·용담2동)은 이날 "교사 채용이 저조한 상황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역 아동센터 등 도내 돌봄 관련 기관과의 업무 중복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교육부가 당초 내년부터 도입하려던 것을 앞당기면서 예산과 인력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도교육청이 정부에 충분한 예산 지원 등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늘봄교사 채용 기준을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확대한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은 "늘봄학교를 위한 기간제 교사 1차 모집에서 선발된 15명 중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1명에 불과하다"면서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초등학생을 교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이운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늘봄학교에서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교육과 프로그램 관리 업무를 봐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경기도 학교복합시설 '벤치마킹'

14~15일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지역 여건 감안한 사례 찾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교육발전연구회(대표의원 고의숙, 교육의원, 제주시 중부)는 지난 14~15일 경기도의 학교복합시설 벤치마킹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복합시설법' 및 2024년 정부의 학교복합시설 확대 본격화 발표에 따라 제주지역의 학교복합시설 구축과 그동안 관리·감독 등 해묵은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계획됐다.

지역 여건을 감안한 학교복합시설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소래초등학교 부지에 구축된 소래너나들이센터(마을맞춤형), 동탄중앙초등학교 부지에 구축된 동탄중앙이음터(지역연계형), 원동초등학교 부지에 구축된 원동초스포츠센터(단일구성형)를 방문해 다양한 모형을 살펴봤다.

이날 동행했던 원화자 부대표(국민의힘, 비례대표)는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는 유연한 공간을 마련해 학교와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방안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경기도 학교복합시설은 교육청과 지자체 간 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협의가 이뤄졌고, 이에 따른 소유와 운영이 분리됐다"면서 좋은 사례로 꼽았다.

고의숙 대표의원은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의 내실, 교육과 돌봄, 지역의 문화·체육·복지 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서 "도교육청,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 등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정 정책방향 제대로 견인"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 정책포럼
올해 본격 연구 활동 시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 정책포럼(공동대표 정민구(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현길호(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이 2024년 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정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2024년 연구활동 계획을 확정했다.

주요 연구활동 계획으로 1차 산업을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 방안 △특별개발우대사업 등 민간 연계 농기계 임대정책 활성화 △마을자산 및 공유재산 활성화 시범사업 방향성 검토 △주민상생 균형발전 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자치분권 분야로 △제주형 주민자치회 기능 강화, 자치입법 분야로 △기본조례 법제 연구 등 총 4개 분야·9개 과제가 선정됐다.

현길호 공동대표는 "지난해 의원님들의 열정으로 빚은 참여와 노력이 올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민구 공동대표 역시 "지방자치의 핵심은 '균형발전'과 '특별자치'"라면서 "도정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견인함으로써 도민께서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입법화하는 과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할 것"

지역 문화 특화 발전연구회
19일 정기총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 문화 특화 발전연구회(대표의원 양용만, 국민의힘, 한림읍)는 지난 19일 도의회 의사당 나눔마당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지난해 지역 문화 특화 발전연구회는 소속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가초청 특강과 서귀포시 동지역 근대건축물의 분포 특징 및 역사·문화성 가치 분석 용역을 통해 문화도시 및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몽골 울란바토르시 공무연수를 기획하는 등 8건의 연구 활동이 성과를 인정받으며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 활동 결과보고 및 2023년 예산·회비 정산, 2023년 활동계획 승인에 대한 의결, 정관개정에 대한 의결 등을 진행했다.

양용만 대표의원은 "최근 지역문화가 로컬브랜드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올해도 근현대건축물 자산의 역사·문화성 가치 분석 용역을 통해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해양의 지속 발전 모색"

해양산업발전포럼 정기총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대표의원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지난 1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2023년도 연구활동실적 보고와 2024년도 연구활동계획 보고, 토론회 및 간담회 주제 선정,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과제 선정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올해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에서 다뤄질 주제는 △제주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정책방향 △제주도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관한 상생방안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도입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한 수산물유통 개선방안 △낚시면허제도 도입 등의 모색이다.

또한 연구용역의 건으로 제주크루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선정해 제주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및 제주경제 활력에 미치는 영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송창권 대표의원은 "도내 연안해역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처리난이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처리방안이 미흡하고,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한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제주도 해양수산 현안사항 및 해양산업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활동을 통해 제주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포럼 2024년 정기총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사회적경제포럼(대표의원 이남근,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달 23일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 2023년 활동 실적 및 결산 내역과 2024년 활동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사회적가치 평가 제도 이해'를 주제로 (재)사회적가치연구원 권순범 SPC팀장을 초청해 전문가 세미나도 진행됐다.

권순범 팀장은 (재)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가치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우수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남근 대표의원은 "도내 사회적경제 정책발굴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도민과 사회적경제 기업, 관련 단체 등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월 31일에는 사회적경제포럼이 '사회성과 인센티브 제도 운영 근거 마련 및 정책제언'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신기한 제주어 ㉙

줄쭈런이

(부사) 여러 개가 나란히 놓여있는 모양

"동문시장 좌판 우티 튼 눈으로 줄쭈런이 누운 은갈치덜이 입을 돌싹돌싹한다. 이녁네 집이 가시민 좋으켜, 혼저 집이덜 글렌 곧는 생이다"

· 우티 : 위에
· 튼 눈 : 뜬 눈
· 돌싹돌싹, 들싹들싹, 돌싹돌싹 : 위 아래로 되풀이해서 움직이는 모양, 아이들이 가볍게 뛰는 모양
· 이녁네 : 자기들
· 집이 : 집에
· 가시민 : 갔으면
· 좋으켜 : 좋겠다
· 혼저 : 어서 빨리
· 집이덜 : 집에들
· 글렌 : 가자고
· 곧는 : 말하는
· 생이다 : 모양이다

양전형 저 「제주어 용례 사전①」중에서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월 별	회 수	회 기	의사일정	주요 처리 안건
계	11회	총 127일 • 정례회 2회 / 39일 • 임시회 9회 / 88일	본회의 33일 상임위 49일 예결위 15일 공휴일 30일	
2월	제424회 임시회	2.19.(월) ~ 2.29.(목) (1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7일 공휴일 2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교육위원회 제외)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3월	제425회 임시회	3.19.(화) ~ 3.27.(수) (9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공휴일 2일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교육위원회)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4월	제426회 임시회	4.15.(월) ~ 4.26.(금) (12일)	본회의 7일 상임위 3일 공휴일 2일	• 도정·교육행정 질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5월	제427회 임시회	5.14.(화) ~ 5.21.(화)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공휴일 3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6월	제428회 제1차 정례회	6.11.(화) ~ 6.26.(수) (16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예결위 5일 공휴일 4일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7월	제429회 임시회	7.1.(월) ~ 7.3.(수) (3일)	본회의 3일	• 제12대 후반기 원구성
	제430회 임시회	7.15.(월) ~ 7.19.(금) (5일)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9월	제431회 임시회	9.2.(월) ~ 9.13.(금) (12일)	본회의 7일 상임위 3일 공휴일 2일	• 도정·교육행정 질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0월	제432회 임시회	10.4.(금) ~ 10.24.(목) (2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2일 공휴일 7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433회 제2차 정례회	11.12.(화) ~ 12.4.(수) (2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7일 예결위 8일 공휴일 6일	• 2025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2월	제434회 임시회	12.10.(화) ~ 12.16.(월) (7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공휴일 2일	• 제1회 추경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 긴급 회의소집, 회기연장 운영 등을 위한 예비일: 23일

“제주산업 감귤 재부흥으로 시작”

강 연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제주에서 1차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그중에도 감귤산업은 제주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전체 농가 3만 452가구 중 65.4%인 1만9913가구가 감귤을 재배하고 있다. 2022년 조수입은 1조418억원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최근까지 감귤 출하 상황을 보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노지감귤이 사상 최대 가격을 받고 있다. 월동감귤,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 대표적인 만감류들도 전년에 비해 50%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감귤가격이 높은 이유는 다양하다. 감귤농가의 고품질 생산 노력, 생육기 기상 여건, 타 과일의 작황 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런 상황에서 감귤산업의 재부흥을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 감귤농가는 원지정비 사업 등을 통해 생산성 높은 감귤원을 만들고, 토양 피복 재배 확대 및 방풍수 정비 사업 등을 통해 감귤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농협 등 생산자단체는 고품질 감귤을 위한 농가의 생산 의욕을 이끌어 내야 한다. 농가가 땀 흘려 생산한 감귤에 대한 광센서선과기를 이용한 당도 측정 등 품질 차별화를 통한 출하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장 확보에도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 또,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계절 근로자와 농촌인력중계센터 등을 활용한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재해에 의한 열과, 낙과, 언 피해 등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행정에서는 FTA 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 지원 범위를 넓혀 고품질 과일 선호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 미래 감귤산업을 위한 품종개발을 통해 고품질 감귤 생산을 증대하고, 분산 출하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과잉 출하를 방지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가공용 감귤 수매 단가 현실화 등 규격 외 감귤을 철저하게 격리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불법을 자행하는 일부 선과장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다.

지난 2월 6일 올해 첫 간벌 발대식이 남원지역 감귤원에서 시작돼 도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간벌사업은 감귤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본 사업 중 하나다. 하지만 올해는 예산 감소 등으로 인해 지난해 227㏊였던 간벌면적이 136㏊로 축소돼 고품질 감귤 생산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 산업의 재부흥을 위해서는 작년의 좋은 가격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수급 관리와 품질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품종 개발과 재배 기술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교체육으로 희망 만들기

박 정 환
제주도교육청
평생교육 사무관

체육 수업은 신체 단련을 넘어 원만한 대인관계와 인성·학업 발달에도 중요성이 크지만 소홀하게 취급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비만·과체중 비율이 30%가 넘고 신체활동 점수는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반면 교육 선진국이나 세계 명문 학교의 체육 중시는 상식이다.

영국 이튼스쿨 등 명문 학교 교과과정에서 비율이 높은 과목이 체육이다. 체육 시간이 전 교과의 25%를 차지하기도 한다. 미국의 한 고교가 0교시에 전교생이 1.6km 달리는 체육 수업을 배치해 놀라운 학습 능력 향상을 보였다. ‘네이퍼빌의 혁명’이 바로 그것이다.

존 레이티 하버드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아이들은 운동을 하면서 같이 부딪치고 교류할 수 있다. 운동을 하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한국 교육의 미래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체육 교육계에서는 정규 수업으로서의 체육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의 활용, 건강체력교실과 지역거점형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방학 중 집중 프로그램 등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한 실질적인 학교체육 활동이 심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의 체육수업은 티볼, 넷볼, 플로어볼 등의 뉴스포츠 적용과 통합된 창의융합형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학생 중심 체육에서는 체육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떤 말로도 선생님의 노고를 대신할 순 없다.

건강한 사회의 시작은 학교체육의 활성화에서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체육은 중요한 교과이다. 학생들이 뛰놀고 씩씩하게 공부하면서 서로 버팀목이 되어 주는 상생의 교육이 됐으면 한다. 전인교육으로서 체육교육의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

청년 정책 접근성 높이는 ‘알림톡’

김 신 관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실
주무관

제주에서는 2020년부터 청년들에게 관심 정보를 문자로 알려 주는 청년정보 메시지 청년데이터베이스(청년DB) 알림톡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 DB 알림톡은 제주청년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청년(19~39세)들을 대상으로 관심분야(청년활동, 자립, 소득) 별로 주 3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청년의 정책 접근성과 정책 호응도를 활성화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관심 분야별로 받아보기를 원하는 정보의 주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청년 등록 정보를 토대로 도내 청년활동 DB 및 청년 풀 구축, 청년 DB 분석을 통한 청년 수요와 특성에 맞춘 청년정책 수립, 도 산하 위원회에 청년위원 활동을 원하는 청년 희망자를 대상으로 청년 인재를 추천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도내에 거주하거나 제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은 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http://www.jejuyouth.com)에서 등록한 후에 청년 정책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현재 약 8400여 명의 제주 청년이 등록하여 문화예술, 청년활동, 일자리 순으로 관심을 보이며 각종 정보를 얻고 있는데 많은 청년정책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찾는 보다 더 많은 청년이 청년등록시스템(DB) 가입으로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유익한 도구가 되고 도움을 얻을 수 있길 바라며, 제주 각 지역의 청년들에게 청년정보등록시스템 등록을 적극 추천해 본다.

"저 하늘이 명정포요, 저 바당이 칠성판이라.
요왕할마님, 영등대왕님 일만좀수 그늘롸줍써"

물결의 호흡과 바람의 맥박이 용왕이며 영등일까? 살아있는 바다를 섬기는 굿의 계절이 어김없이 되돌아왔다. 회한일랑 부디 썰물이는 물이랑에 실어 보내 주옵시고 재수 소망 밀물지게 하옵시길 마디마디 옹이 진 손 닳도록 빈다. 사백 리 물로 뱅뱅 휘감은 제주섬에 영등바람이 불어온다. / 한진오 극작가

청소년 의정체험 "오늘은 내가 도의원"

외도·백록초 올해 첫 참여
의회 역할·이해 높이는 계기

제주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이 2024년에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15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외도초, 백록초 어린이회 11명과 학부모 5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첫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이 이뤄졌다.

올해는 방학을 이용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년보다 2개월 일찍 시작됐다.

이날 참석한 학생들은 의장, 의사담당관, 도지사, 교육감 등의 역할을 맡아 보고사항과 도정·교육행정 질문 및 답변, 조례안 찬·반토론 및 전자표결 등 모의의회를 직접 진행했다.

이어진 도의원과의 만남 자리에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오늘 의정체험으로 청소년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고, 미래의 주인공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면서 "학생과 학부모님이 함께하는 자리라서 더욱 의미있는 체험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2차 신청·접수기간은 3월 4일부터 15일까지로 도의회 누리집(www.council.jeju.kr) 또는 꿈길(www.ggoomgil.go.kr) 접속을 통해 할 수 있다. 도내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청소년·일반 단체 등으로 나눠 팀당 10명 이상, 45명 이하로 신청할 수 있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 미래를 이끌 인재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간 회기 안내 "수어로 만나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수어통역 콘텐츠 제작에 나섰다.

올 한해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른 회기를 안내하는 신규 숏폼을 자체 제작하는 것으로, 총 11회 회기(정례회 2회·임시회 9회)에 대해 매 회기별 의사 일정 및 주요 안건에 대해 수어통역으로 홍보를 전개하게 된다.

올해 처음 열린 제424회 임시회는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이 안내를 맡았다. 향후 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어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계자는 "2024년에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에 전념해 도민들의 행복과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의 조례청구 수리 3개월 내 결정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7일부터 주민조례청구 사항에 대해 3개월 이내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를 함으로써 신속한 절차 이행에 나서는 등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강화한다.

이는 제주특별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에는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리 또는 각하 여부 결정 및 통지를 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뿐만 아니라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 등록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청구 내용과 처리현황 공개사항에 관한 사항, 선정대표자 지정 및 대표자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청구인명부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 서명수가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 각하 결정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청구의 철회에 관한 사항 등도 신설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